

오피니언

光日春秋

임동욱



컴퓨터 자판 왼쪽 상단에 배열되어 있는 글자들이 QWERTY에서 유래한 쿼티(QWERTY)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과거의 진행방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이다. 1868년 크리스토퍼 슈스가 창안한 배열방식인 QWERTY 배열이 영문 타자기 자판의 표준이 된 것은 단지 그것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타이프 바가 왼쪽으로 배열되어 있어 자주 엉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이핑을 빠르게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컴퓨터 시대에 들어와서 인지공학자들이 사용성 편이를 위해 드보락(DVO-RAK) 자판기 등을 개발했으나,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도 이미 너무나 익숙해진 QWERTY 자판기 배열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영국의 기차바퀴 간격이 탄광의 수레바퀴 간격과 같다는, 영연방 국가들의 차량 좌측통행 관습 등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오늘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쿼티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개인이나 사회의 오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설파한 E. H. Carr의 명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나

디지털에 '올바른 가치' 심어라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과거의 잣대나 관성 등 쿼티 경제학이 강조하는 사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과학기술사에서도 몇 차례의 혁명이 있었다. 제임스 와트로 대표되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되었다. 과학기술 혁명사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혁명은 IT를 토대로 한 C&C(computer and communication)의 혁명으로 인터넷은 이의 상징이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자연스럽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고 서신에 의존하는 오프라인상의 전

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신에 전화라는 음성과 음성 및 D와 ID를 통한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는 우선 기술진보 진보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E-Mail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고 채팅만 해도 최신이더니 메시지를 통해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실명세계와 가상세계가 공존하고 일인다역의 다중 인간

형의 출현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준거로는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 열리고 있으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과거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방식과는 차별화되고 단절된 속성을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지면서 블로그와 UCC의 영향력 역시 강해지고 있으며 금년 말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변수로 UCC와 포털 사이트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까이 있는 금년 초 어느 국회의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배부터 지난 2006년 월드컵 때의 오심 논란, 일본과의 독도문제 등 중요 국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관련 홈페이지를 무

차별 공격하여 서버를 다운시킨 우리 네티즌의 가공할 파괴력을 생각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삶을 편리하고 재미있게 해주는 블로그나 UCC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살인, 강도, 도둑 등 오프라인의 중요 범죄는 온라인에서도 중대 범죄이고 자유, 평등, 민주, 사랑 등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귀중한 가치들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단절"이 시대가 요구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부터 2000년 사이에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기본적으로 제시되었다. 흔히 말하는 인류의 4대 성인을 통해서 그 해답이 제시되었고 갈 아스포스는 이를 인류정신의 중심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나 활동 역시 인류정신의 중심축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지난 1일 선관위가 포털 사이트에 대선후보의 UCC 삭제요청을 한 것이 바른 것인가 역시 여기서부터 판단해야 한다. <충주대 행정학부 교수 한국대통령학 연구소 부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2단계 균형발전 구상 후속조치 서둘러야

정부가 7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1단계 구상이 행복도시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 구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상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균형발전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균형발전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효과가 미약해 지방은 갈수록 경제·사회적 활력을 잃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의 48.3%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비중이 훨씬 높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도권 비중은 47.7%에 달하고, 토지가액의 비중은 2003년 59.3%에서 2004년 61%, 2005년 62.5%, 지난해 63.9%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2단계 구상은 지방의 인구와

사업체, 고용 등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법인세 부담 경감, 고용보조금 지급, 지방 출자 시 출자총액 제한에 예외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업과 사람의 '탈 수도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1단계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투자하거나 분사를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시된 각종 유인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조달 계획마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4월까지 정책화 방안을 확정 한 뒤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면 법제화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재반여건을 고려해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남 가난해도 이웃사랑은 뜨거웠다

남도의 훈훈한 인심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펼친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에서 전남의 1인당 모금액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열악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민의 온정은 살아있었던 것이다. 전남은 이번 캠페인에서 목표액(40억 원)을 훌쩍 넘긴 44억 원을 모금했다. 전남도민 1인당 2천401원을 기탁한 셈이다.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총남의 2천952원에 이어 2위의 액수다. 모금총액에서도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민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온정 나누기가 사랑의 온도를 팔팔 끓게 한 것이다. 다만, 광주와 전남의 1인당 모금액이 각각 14위와 12위를 기록한 것은 아쉽다. 이번 이웃사랑 캠페인은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 침체로 온정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황도 남도인의 온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시

간이 흐를수록 고사리 손에 쥐어진 돼지 저금통에서부터 노인의 찻집돈에 이르기까지 정성 어린 성금기탁이 줄을 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영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랐다. 결국 전남도민은 이웃사랑은 경제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로부터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미덕을 실천해왔다. 특히 요즘처럼 어렵고 고달픈 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큼 값지고 귀중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눔은 금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사랑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나눔의 근본정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동체 사회를 함께 이해하고 만들려는 노력이다. 전남도민의 나눔정신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온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박찬용.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이 5년간의 연구를 끝내고 지난 달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시점에 맞추어 중국의 장춘(長春)에서는 겨울 아시안 게임 축하공연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는 백두산 천지에서 성화를 제화하는 장면과 백두산 일대에서 수렵하는 미개한 족속들이 중원(中原) 문화로 편입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동북공정'을 정당화 하고 향후 발전된 역지논리를 앞세우려는 치밀한 시도로 보여진다. 실제로 중국은 금년 1월로 끝나는 동북공정과는 별도로 한민족의 고조선역사가 포함된 요하(遼河)문명을 중국사로 편입 하려는 최종단계인 '탐원공정'을

독자마당. 군인 복장의 일본 만화 캐릭터 개떡칙하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 '개구리 중사 케로로'라는 일본 만화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백화점이나 편의점에는 이 만화 주인공 캐릭터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 캐릭터 중 일본것을 상품화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린 시절 미징가 제트와 아틀 등의 일본 만화에 열광하면서 자란 기성 세대도 많다. 하지만 개구리 중사 케로로는 조금 다르다. 일본군 복장을 하고 있다. 하나같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전투모를 착용하고 등장하면서 단순히 귀여운 만화 캐릭터의 복

중국의 역사침탈, 한국의 무사안일. 이미 2006년부터 진행 중이다. 요하(遼河)문명이란 1986년 중국의 요하(遼河)근처에서 발견된 요녕성 유적을 말하는 것으로 배달문명의 요람으로서 당시 세계 고고학계에 파문을 던진 곳이다. 이 유적은 탄소 축적결과 지구로부터 5400년전의 것으로 중국의 황량조보다 1000년이상 앞서며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유적의 주인공이 한민족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이 지역은 황화유역의 중원문화와 다른 홍산문명(紅山文明)이라는 것과 둘째, 이 지역이 중국정사(正史)에서 동이(東夷)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셋째, 여기서 발견된 두개골이 좌우가 넓고 앞뒤가 좁은 몽고계통의 특징을 갖고 있어 체질인류학적 측면에서 한민족과 유사하다는 점, 넷째, 이 유적의 석공예와 적석묘는 황하문명과는 다르며 시베리아 기원설보다 수천년 앞서는 시기라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측은 요녕성 유

대형 아파트에 응급환자 위한 엘리베이터 고려해보자.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들이 고급화하면서 그 내장 또한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하지만 고층건물의 필수시설인 엘리베이터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듯하다. 현재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구급차용 침대가 들어가지 않는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 입주자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구조에 어려움을 준다. 이는 누워서 후송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응급요원은 침대를 접어 환자를 얹힌 채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 유지가 필요한 척추손상 환자의 경우 이런 운반 과정에서 자칫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병원에 도착하는 시

음식물찌꺼기 가로수에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인 상인. 일부 식당과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먹다 남은 국물을 가로수에 내다버리고 있다. 얼마전 밤에 시내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포장마차 주인이 김치가 섞인 국수 국물을 그대로 들고 가로수에 쏟아부었다. 그 가로수는 고춧가루가 붙어 빨간색을 띠고 있다. 대체 얼마나 많았을까. 과연 그 가로수는 살아날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과속 면허증'으로 착각해선 안돼. DMB 수신, 지리찾기, 과속단속구간(고정·이동)에 대한 정보가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부착하는 차량운전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지만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과속 단속을 피할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장만하였다가 자랑하는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기계의 특성을 너무 믿고 과속 단속 구간만 피하면 된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최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

無等鼓. 낙지는 '별속의 산삼'이라 불릴 정도로 고단위 스테미너 식품이자 영양의 보고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살이 희고 맛은 달콤하며 사람의 원기를 들춰 준다. 농사철을 맞아 논과 밭갈이에 지쳐 쓰러진 소에게 산 낙지를 먹이면 벌떡 일어선다'며 낙지 효능을 극찬했다. 낙지는 인과 철분, 칼슘 등 각종 무기질과 아미노산을 풍부 함유하고 있다. 특히 강장제이자 시력 과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타우린이란 영양소가 34%나 들어있다. 일제 말기인 1945년 일본 해군에 비행기 조종사들의 시력 회복을 위해 타우린이 풍부한 꼴뚜기 끓인 물을 먹이기로 했다. 최근들어 매운 낙지볶음이 젊은 층 입맛을 당기고 있으나 낙지는 날 것으로 먹어야 제 맛을 음미할 수 있다. 낙지는 산후 조리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만능이 아이를 낳으면 낙지 미역국을, 딸을 낳으면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준다. 우스갯소리로 있다. 어른에서는 낙지와 관련된 용어나 속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